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7 해운빌딩 9층 / TEL.739-0309 FAX.739-1564

www.fkmi.or.kr

담당 : 이종화 과장 (jhlee@oneksa.kr)

문서번호 한해총 제 20 - 15 호

시행일자 2020. 5. 7.

수 신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참 조 물류통합T/F팀장

제 목 물류자회사 설립계획 철회 건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해운물류산업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해상물동량 감소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당분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립하여 추진중인 해운산업재건 계획 및 코로나19 위기극복대책과 발을 맞추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3. 지난 4월 23일 HMM의 제1호 세계최대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운산업을 제4군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해운산업의 재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선하주가 상생발전하는 해운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세계에 공표했습니다.

4. 이런 가운데 귀사에서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우리 해운물류업계는 충격과 낙담 속에 지난 4월 28일 정부 및 국회에 별첨과 같이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5. 귀사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결국 해운업 진출로 귀결되어 해운 산업 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들 것이며,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와 같은 다른 대량화주가 해운물류산업에 진출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제3자물류 육성정책에도 배치됨은 물론 제3자물류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물류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며 여태까지 귀사와 물류전문기업 간에 공들여 쌓아온 상생협력관계가 와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6. 그동안 국내 대량화주가 자기화물을 믿고 해운물류분야에 진출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으며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형화주사들은 물류자회사를 세우기보다는 제3자물류전문기업과의 공생관계를 돈독히 하여 상호 윈윈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7. 더구나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매출은 높지만 일자리 창출효과 없으며 막강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중소물류주선업계가 고사위기에 직면하는 등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8. 귀사는 한국해운물류산업의 산파와도 같은 기업으로서 우리 해운산업이 세계5위로 성장 할 수 있었던 근간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해운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철강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9. 따라서 귀사가 추구하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에 맞추어 물류자회사 설립계획을 철회하시고 해운물류업계와의 상생방안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해양, 해운, 항만, 물류산업 50만 해양가족 청원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



**해양·해운·항만·물류산업
50만 해양가족 청원서**

2020. 4. 28.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청 원 서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무너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맞아 해양가족들 모두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3일 HMM의 세계 최대 제1호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는 우리 50만 해양가족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셨습니다.

해운산업을 제4군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해주셨으며 해운산업의 재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공표해 주셨습니다. (별첨: 세계최대 컨테이너선 명명식 문재인 대통령 축사, '20. 4. 23.)

이로 인해 우리 해운산업에 대한 국내외적인 신뢰와 믿음을 한층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연일 해운산업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렇듯 위기극복 의지를 다지며 해운재건의 희망을 펼치는 50만 해양가족 앞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00년 이후 재벌기업들은 물류비 절감이라는 명분을 들어 물류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시켜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자회사들은 모회사 물량을 수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물류전문기업이 성장해 나가야할 토양인 제3자물류 시장을 대거 침범하여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들어온 국민기업 포스코마저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맞서서 해운재건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우리 해양가족에게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과거 포항제철 시절인 ‘90년에 대주상선을 설립하고(이후 거양해운으로 사명변경) 해운업에 진출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5년 만에 고배를 마시고 철수함으로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던 기업입니다. 그랬던 포스코가 또다시 물류업에 뛰어들다고 하니 가뜰이나 재벌기업의 물류자회사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는 제3자 물류전문시장이 더욱 심하게 훼손될까 염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는 연간 제철원료 8천만톤을 수입하고 2천만톤의 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세계적인 제철기업으로서 모든 국민의 자랑입니다. 특히 수입원료와 수출제품을 전부 선박으로 운송해야하는 만큼 국내 물류분야 협력업체들에겐 젖줄과도 같은 기업입니다. 이런 국민기업이 물류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3자 물류기업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만 배를 불리겠다는, 경제생태 파괴적인 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제1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자가물류나 제2자물류를 제3자물류로 전환해도 모자를 판에 제2자물류기업을 세워 본격적으로 제3자물류시장을 휘젓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기업 포스코가 다른 재벌기업처럼 물류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설립한 물류자회사로 통행세만을 취할 뿐 전문적인 국제물류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도 제한적이며 우리 해양가족 얼굴에 그늘만 드리울 뿐입니다.

50만 해양가족의 이름으로 청원 드립니다.

국민기업 포스코가 선하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물류자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대통령님께서 천명하신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물류에만 전념해온 물류전문기업과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28.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원일동 올림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해양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고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양분문 각 단체간 협력증진을 통하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함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08년 11월 결성된 해양산업의 연합단체임.

총55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총매출 70조원, 전체 종사인원 50만명이며 강무현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이 회장직을,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이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음

한국해양재단	한국선주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선급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주상호보협조합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한국해운조합	한국해기사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한국해양수산물연수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투자운용회사협의회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한국검수검정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운대리점협회	한중카페리협회	케이엘넷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수산물기업협회	한국항만협회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해양연맹	해양수산물과학기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법학회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해사법학회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해운세계학회	한국해양교육연구회
한국해사재단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명명식 문재인 대통령 축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운·조선산업 관계자 여러분,

거제 대우조선소의 거센 바닷바람에는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2년 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오늘 그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HMM의 ‘알헤시라스호’가 명명식을 갖고, 드넓은 바다
로 출항합니다. 컨테이너 2만4천 개를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입니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운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결국 극복했습니다. 오늘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으로 대
한민국 해운 재건의 신호탄을 세계로 쏘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명명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올해 안에 같은 급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열두 척이 세계를 누비게 됩니다.

400여 년 전 충무공께서 ‘열두 척의 배’로 국난을 극복했듯,
‘열두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우리 해운산업의 위상을 되
살리게 될 것입니다.

선원들과 노동자 여러분,
HMM과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여러분,
정책금융기관과 해양진흥공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경남도·거
제시 관계자 여러분도 잘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국민
들께 큰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근·현대 세계사에서 바다로 꿈을 넓힌 나라가 세계를 연결하
고,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교역의 90%,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뤄집니다. ‘해운 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해운은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효자입니다.

전방의 항만, 후방의 조선과 같이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화물 운송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특히 주요 전
략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 원자재와 에너지가 해운으로 들어오고, 전시에는 해운이
육, 해, 공군에 이어 ‘제4군 역할’을 합니다.

명실공히 해운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우리는 1950년, ‘대한해운공사’를 설립해 해운산업을 육성하
기 시작했습니다.

교역에 쓸만한 상선조차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출발은 열악했지만, 1965년 북미 원양 정기항로를 처음으로 개설한 후 우리 해운은 빠른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한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장기불황과 국내 1위 선사의 파산으로, 우리 해운은 70년간 구축해온 물류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해운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운산업 재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했습니다.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7년 당시 현대상선의 운명도 풍전등화에 놓였지만,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난달 HMM으로 새롭게 변모해 세계 해운시장에 우뚝 섰습니다.

벌써 초대형 컨테이너선 스무 척을 발주했습니다. 세계 3대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가입해 이달부터 운항 서비스 협력을 시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 해운을 살리기 위한 지난 2년의 노력이 오늘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해운·조선산업 관계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로 인한 경기침체의 파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IMF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세계 경기침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봉쇄’로 인한 글로벌 화물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됩니다.

그만큼 우리 해운과 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모든 가
용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헤쳐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금융 납기연장,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3천8백억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신속히 시행했으며,□

오늘 오전, 추가로 1조2천5백억 원의 대규모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선박금융과 ‘선박 매입후 재대선(S&LB)’, 해
운사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이 확대되어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필수인력과 물자의 이동이 허용되어야 해운·물류 활동이 보
장되고 국제경제의 침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해운업계가 닥쳐오는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과 끝
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정부는 ‘긴급 수혈’ 과 함께 ‘체질 개선’ 으로 우리 해운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할 것입니다. ‘세계 5위 해운강국 도약’ 을 목표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다시는 부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상생형 해운 모델’ 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우리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 기업들에게 항만시설 사용과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주와 화주가 상생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중소·중견선사를 육성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제조업 등 연관산업으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도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을 해운에서 이루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IT 기술을 토대로 ‘자율운항선박’ 과 ‘지능형 항해시스템’ 을 도입하겠습니다. 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고 스마트 물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 제2신항’ 을 조속히 건설하고, 광양항에도 컨테이너 하역부터 이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한국형 스마트 항만’ 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선박산업’ 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선박 국제환경규제는 우리에게는 신산업 창출의 기회입니다.

친환경 설비 장착을 위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LNG와 수소 엔진 선박’,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선박 탈황장치’와 같은 친환경 선박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알헤시라스호’의 첫 항해를 축하하면서 선장님께 우리의 전통나침반 ‘윤도’를 드립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혁신의 길을 향해 우리 해운산업이 꾸준히 발전해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해운·조선산업 관계자 여러분,

2년 전, 이곳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당시 산업구조조정 지역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우리의 해운·조선산업을 반드시 되살리자고 함께 다짐했습니다.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제일의 조선 강국 위상과 함께 한국 해운의 힘찬 재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 ‘알헤시라스항’에는 우리 국적 컨테이너선이 빼곡히 정박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도, 독일 ‘함부르크항’에도, 유럽의 항만들 마다 우리 브랜드의 컨테이너박스가 가득 적재될 것입니다.

‘알헤시라스호’의 첫 뱃고동 소리가 우리 해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기적,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 해운, 대한민국 경제’의
상생도약을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